

03

인간과 윤리 농업 실천에 관한 연구



이상호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 교수
leejungto@empas.com

1. 머리말

2004년 중국 안웨이(安徽)성 푸양(阜陽)시에서는 단백질 함유량 '0'인 가짜 분유를 먹은 유아 13명이 머리만 커지는 대두증을 앓다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광저우(廣州)에서는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50도짜리 가짜 백주를 마시고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적이 있었다.¹⁾

프랑스 고급 요리 중 각종 행사나 연회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요리가 푸아그라(foie gras)이다. 푸아그라는 원래 거위나 오리의 간 또는 그것을 재료로 만든 프랑스요리이다. 지방 함량이 높고 맛이 풍부하고 매우 부드러워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같이 요리한 모든 음식조차도 맛있게 만든다. 높은 인기에 비해 푸아그라 생산 과정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푸아그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위의 위에 강제로 사료를 밀어 넣기 위해 철제 호스를 끼워 넣는다. 거위가 자기 스스로 사료를 섭취하고 자라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바심과 탐욕이 개입된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암컷 거위 살처분(殺處分)으로 이어진다. 암컷 병아리는 성별 감별 후 바로 살처분된다. 수컷 거위보다 암컷 거위가 생산하는 푸아그라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살아남은 수컷 거위의 삶 또한 비참하다. 농장 주인은 거위 자신의 의지를 무시하고 좁은 케이지에서 강제로 사료를 끊임없이 밀어 넣는다. 사료의 강제 투입 후 거위의 간에 지방이 쌓이며 붓기 시작한다.

1) 『뉴스메이커』, 581호, 2004년 7월 8일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_id=7628#csidx12a35f84461a01082289f0e9d55b12e, 검색: 2019. 4. 20)

일정 이상의 거위의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에 화학적 변이가 오며 풍미가 극대화 된다. 그것이 바로 푸아그라이다. 15일 간의 강제 서식을 통해 거위의 간이 정상보다 10배가량 커지면 그 때 도축한다. 이런 잔인한 사육 방법을 가바쥬(Gavage)라고 한다.

이 기술은 기원전 2,500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안해 낸 기술이다. 야생 거위는 대이동해야 할 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오면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는다. 긴 여행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한 에너지는 간에 지방 형태로 비축해야 한다. 대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잡은 거위에서 추출한 간은 맛이 특히 좋다. 거위에게 사료를 강제로 먹이면 간이 급속도로 부풀면서 화학적 변이로 독특한 풍미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푸아그라를 연중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위를 살찌우기 시작했다. 이집트 고대 벽화에도 가바쥬 방법은 그림으로 남아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안해 낸 푸아그라 생산 기술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현재 전 세계 푸아그라의 75%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로 전달된다.

KFC의 “올해의 우수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던 웨스트버지니아 주 무어필드 도살장에서 찍힌 비디오에는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닭을 벽에다 메치기도 하고 닭들의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갈아뭇개기도 하고, 살아 있는 닭을 축구공 차듯 뱅뱅 걷어차기도 하는 모습, 도살장 일꾼들이 닭의 머리를 뜯어내어 그것으로 벽에다가 피 칠을 하며 낙서를 하는 모습 등이 그대로 찍혀 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 수록 닭을 도살하는 일꾼들은 생명을 죽이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감수

성은 둔감해 질 수밖에 없다.²⁾ 우리나라 닭 사육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양계장에서는 닭을 자연 속에 방목을 하지 않고 몇 만 마리씩 밀집해서 키우는 공장식 양계를 하고 있다. 정해진 틀 속에 있는 닭은 거의 움짱달썩할 수 없다. 잠자는 시간도 닭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하고 계란을 낳아야 한다. 더 이상 계란과 닭고기는 자연 농산물이다. 공장식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조제품에 불과한 것이다. 공장식 양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닭은 자연스럽게 면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약한 닭에서 생산된 계란을 섭취하면 인간 또한 피해를 본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악순환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 행동 때문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사람된 도리를 지켜 나가는 윤리 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윤리의 의미, 인간과 동물의 공존 윤리 중심으로 인간과 윤리 농업 실천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인간의 이기적 행동 발생 배경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을 기준으로 보면 나와 남은 다른 존재이다. 마음은 본마음과 이기적 욕심으로 나눌 수 있다. 본마음은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에서 곧고 바르게 발현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에서 인(仁)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도덕적 원리이며, 의(義)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리(事理)를 판별하는 올바

2) 김원구, 「음식윤리의 주요 쟁점과 그 실천의 문제」, 『환경철학』 제18권, 한국환경철학회, 2014, 15쪽

름을 말한다. 예(禮)는 의(義)에서 나오는 구별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에 합당한 형식을 갖추어 표현한 것이다. 지(智)는 인(仁)·의(義)·예(禮)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본마음은 맹자가 말한 사단(四端)에 해당된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도덕적 원리인 인(仁)이 곧고 바르게 발현되면 타인의 불행,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헤아려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나오게 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사리(事理)를 판별하는 올바름인 의(義)가 곧고 바르게 발현되면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나온다. 의(義)에서 나오는 구별인 예(禮)가 곧고 바르게 발현되면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나온다. 인(仁)·의(義)·예(禮)를 실현할 수 있는 지(智)는 옳음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나온다. 맹자는 사단(四端)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사단(四端)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마음은 주변 여건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본마음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이기적 욕심은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에서 본마음으로 발현되는 과정에 이기적 계산이 개입되어 나온 마음이다. 본성에서 본마음으로 발현되는 과정에 이기적 계산이 개입되면 본성이 왜곡(歪曲)되고 굴절되어 이기적 욕심이 생기게 된다.

몸이 본마음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하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입장 바꾸어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내 본마음과 다른 사람 본마음이 같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도 원하는 일이다. 그 마음을 미루어 좋은 일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게 된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행동에서 본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머니가 먼저 하신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당신보다 자녀들을 먼저 먹인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보다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몸이 이기적 욕심의 노예가 되면 자신의 몸과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킨다. 모두가 원하는 일은 자신이 먼저 챙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님비 현상과 핼피 현상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 Yard'의 말에서 따온 말로 산업 폐기물이나 쓰레기 따위의 수용·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현상을 이른다. 핼피(PIMFY) 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의 말에서 따온 말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리한 시설만을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을 이른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생각이 심해지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현상이 나오게 된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논리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가짜 분유 사건이나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가짜 백주 사건의 이면에도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프랑스의 푸아그라 생산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의 잔인한 면, 우리나라 양계장의 닭 사육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혀끝의 달콤한 맛을 위하고, 닭을 키우는 농장 주인의 이익을 위해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인간과 동물의 공존 윤리

윤리(倫理)란 글자를 분석해 보면 윤(倫)이란 글자와 리(理)를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윤(倫)은 다시 사람 인(人)이란 글자와 둥글다, 조리를 세우다, 생각하라는 의미를 지닌 윤(倫)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륜, 도리, 조리(條理), 떳떳함을 의미한다. 리(理)는 옥(玉)이란 글자와 마을 리(里)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리(里)자는 ‘잘 나뉘어 정리되어 있는 땅이나 밭’의 뜻을 지닌 ‘밭 전(田)’자와 ‘뜻 생명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흙이 있는 땅’의 뜻을 지닌 ‘흙 토(土)’자를 더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잘 어울려 살고 있는 마을’을 나타낸다. 리(理)자는 ‘구슬 옥(玉)’자와 ‘서로 잘 어울려 있다’는 뜻을 지닌 ‘마을 리(里)’자를 더해 ‘玉石이 가지고 있는玉石의 질서정연한 무늬 결’ 또는 ‘옥을 잘 갈았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늬 결’을 나타낸, ‘결리, 이치 리(理)’자, 혹은 ‘이치에 맞도록 다스릴 리(理)’자의 의미를 지닌다. 윤리(倫理)를 정의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인 윤리를 실천하게 되면 동물을 비롯한 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저절로 나오게 된다. 농업에 있어서도 윤리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에 맞게 산다는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에 따르는 삶이며 본마음에 충실하게 산다는 의미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에 따르게 되면 천지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되어 내가 만물이고 만물이 나라는 만물일체적(萬物一體的) 삶을 확립하게 된다.³⁾ 그러한 삶을 확립하게 되면 동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본성(本性)을 품부 받아 저마다 생명(生命)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기게 된다. 자연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 『중용(中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움만이 자기의 본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남의 본성을 다할 수 있고, 남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며,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이로써 천지(天地)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다. 이로써 천지(天地)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으면, 이로써 천지(天地)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⁴⁾

농업(農業)은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는 말을 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농사는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먹거리의 근본이다. 농부가 인체에 좋은 먹거리를 수확하여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공된 수확물을 취사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다. 농사를 함부로 경시할 수 없는 이유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윤리는 자신의 본성과 다른 사람의 본성이 같다는 부분에서 출발한다. 모든 사람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살

3) 『中庸章句』第一章 朱子註：蓋天地萬物 本吾一體，王陽明，『傳習錄 下』黃省曾錄蓋 第二天七四條目：蓋天地萬物與人原是一體

4) 『中庸』第二十二章：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化育 可以贊天地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소중한 존재 내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 지극 정성으로 대하게 된다. 농사를 짓더라도 자신의 수확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하여 지극한 정성스러움으로 짓게 된다. 지극한 정성스러움으로 자신의 천부적인 본성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이 되어 그 자신이 천지(天地)와 마찬가지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화육(化育)시키는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⁵⁾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싱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중(中)과 화(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도 만물이 모두 본성의 작용에 의해 각각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지금까지 이기적 욕심에 머문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의 삶이 본성의 작용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⁶⁾ 중화(中和)를 이루면 하늘은 하늘 자리에 땅은 땅의 자리에 있게 되어 만물은 그 안에서 제대로 길러지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만물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손상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⁷⁾ 이를 유교에서는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⁸⁾ 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관

계로 파악한다.⁹⁾ 자연계의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데 있다.¹⁰⁾ 다음의 내용에서도 이런 점을 엿볼 수 있다.

낚시질을 하시되 그물질을 하지 않으시며, 주살질을 하시되 잡자는 새를 쏘아 맞히지 않으셨다.¹¹⁾

춤추는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앞맞은 때에 산림에 들어 놓으면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¹²⁾

곤충이 아직도 칩거하지 않을 때에는 풀을 태워서 사냥하지 않는다.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이미 성장해서 건전한 것에 국한한다. 새끼를 잡지 않고 알을 줍지 않는다. 새끼 뺨 것을 죽이지 않고, 갓난 것을 죽이지 않으며, 소굴을 뒤집어엎어서 전멸시키지 않는다.¹³⁾

맹춘(孟春)의 달에는,..... 희생은 암컷을 쓰지 못하게 하고, 벌목을 금지하고 동우리를 뒤집어서 새를 잡지 못하게 하고 애벌레, 새끼 뺨 새와 짐승, 갓난 짐승, 처음으로 나는 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짐승의 새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알을 꺼내지 못하게 한다.¹⁴⁾

5) 『周易』乾卦文言傳：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6) 이기동, 『대학·중용 강설』,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118~119쪽.

7) 이상호, 『유교적 생명관의 道德教育的 含意』, 『儒敎思想研究』 第31輯, 韓國儒敎學會, 2008, 335쪽

8) 『中庸』第三十章：萬物並育而不相害

9)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5, 376쪽

10) 이기동, 『진리란 무엇인가』, 서울 : 21세기북스, 2015, 167쪽

11) 『論語』「述而」第二十六章：子釣而不網 弋不射宿。

12) 『孟子』「梁惠王章句上」第三章：數罟不入洿池 漁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13) 『禮記』「王制」第五章：昆蟲未蟄 不以火田 不麝不卵 不殺胎 不斃夭 不覆巢。

14) 『禮記』「月令」第六章：孟春之月,.....犧牲毋用牝 禁止伐木 毋覆巢 毋殺孩蟲胎夭飛鳥 毋麝毋卵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음식물의 내용으로 동물의 고기가 될 수 있고 식물이 될 수 있다. 동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를 먹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생명체에 대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 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만 먹으려고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덜 미안한 음식을 택할 것이다. 동물에 대해서도 측은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촉촉한 그물을 쳐서 어린 물고기까지 잡지 않는다. 나무를 벌목 하더라도 숲의 생태에 부적당한 나무나 해로운 나무 위주로 간별하게 된다. 처음으로 나는 새나 잡자는 새를 잡지 않게 된다. 희생으로 쓰이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새끼를 밴 암컷은 쓰지 않는 등의 배려를 잃지 않게 된다.¹⁵⁾

인간과 동물의 공존 사례는 스페인 농부 소사시 거위 사육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좋은 음식을 먹자’ 시리즈 ④ 행복한 거위와 좋은 푸아그라에서 소사시의 농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소사씨의 농장은 거위들이 자생하는, 넓디넓은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농장이라기보다는 황무지에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있는 형상이다. 소사씨의 농장에선 거위 이외의 그 어떤 다른 가축이나 작물을 기르지 않는다. 완전 방목 거위들은 그

냥 산에 있는 풀, 도토리, 야생 곡식들을 뜯어 먹고 자라고 있다. 소사씨의 차별화된 사육 기술은 고작 ‘완전 방목’이라는 것이었다. 소사씨는 오히려 거위에게 사료를 주면 푸아그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원래 거위란 무릇 겨울이 되면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여름쯤 다시 이 지역으로 되돌아오는데, 북으로 날아가는 장기간의 여행 전, 거위들은 여행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집중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 영양소를 간에다가 저장한다. 그때 자연스럽게 간이 커지며 푸아그라가 만들어 지는데, 이 때 거위를 잡아서 도축하면 바로 가바쥬를 하지 않은 자연의 푸아그라를 얻을 수 있다. 억지로 고통스럽게 사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 4대째 내려오는 거위 농사에서 그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지금의 에두아르도 소사씨가 상업화하였다. 소사씨의 농장에서 완전 방목으로 살고 있는 거위는 1000마리 정도이고 이중 절반을 겨울에 북으로 날아가기 직전에 그물을 던져 잡아서 도축한다. 나머지 500마리는 북으로 날아갔다가 친구들과 또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다시 1000여 마리가 되어 소사씨의 농장으로 돌아온다.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날아 바로 그 자리, ‘거위들의 호텔’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떠난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소사씨 농장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¹⁶⁾

소사씨의 거위 사육 방식은 거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거위에게 억지로 고통스럽게 사료를 먹여 거위 간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사료를 주지 않고 방목을 하면 거위들이 알아서 겨울 대이동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한다

15) 『孟子』梁惠王章句上』第三章 朱子註：時 謂孕字之時 如孟春犧牲毋用牝之類也.

16) http://www.noodlefoodle.com/foodnculture/show_food_culture?gubun=pr&id=3079

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간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1000마리 중 500마리만 그물을 던져 도축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먹고 먹힘, 삶과 죽음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이다.¹⁷⁾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식 도축이 아니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육하고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닭 사육 문제의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럽 연합(EU)은 1999년 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 더 확보하고, 닭장 크기를 확충하여 닭 동지와 햇대를 들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닭 사육 환경 규정을 공포하고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원국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가 농민 부담 상승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새로운 닭 사육 규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생산비 상승 때문에 닭 사육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의 농민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제곱미터(m²)당 5마리 이하의 사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닭 본래의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 계사(鷄舍) 내에 햇대를 설치해야 하고, 자유롭게 모래 샤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 140가지가 넘는 세부 인증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¹⁸⁾

유럽 연합의 닭 사육 환경 규정과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기준은 동물 입장에서 복지 문제에 해당된다. 인간의 입장에서 윤리 농업 문제와 관련이 깊다. 버거킹, 맥도날드가 동물복지 규정 준수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식품원료를 구입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 7300여개의 식품원료 공급업체를 거느린 네슬레는 5년 안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톨 하우스 쿠키 도우, 린 퀴진 아침 식사 등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달걀 9천 톤 이상을 자연 방사 달걀로 전부 대체할 예정이라고 2015년 12월 22일에 발표했다. 네슬레 발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윤리 농업 실천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 복지 규정 준수에 대한 기업의 방침과 발표 배경에는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단체들의 활동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 소비자들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맛, 가격, 편리함, 건강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물의 고통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환경까지 포함한다.¹⁹⁾ 동물의 복지 문제 배경은 더욱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 다국적 식품기업이 이끄는 세계화의 힘이 결합돼 윤리 농업 실천은 조만간 세계적 대세가 될 것 같다.²⁰⁾

4. 마치면서

중국의 가짜 분유 수유와 영양실조에 의한 유아

17) 김명식, 「산업화 농업 시대의 동물 윤리」, 『환경철학』 제18권, 한국환경철학회, 2014, 105쪽.

18) 『여성소비자신문』, 2018년 11월 20일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39>, 검색 : 2019.4.10.)

19) 변순용, 「로컬푸드에 나타난 음식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윤리 연구』 제94호, 한국윤리학회, 2014, 148쪽.

20) 『서울신문』, 2014년 9월 18일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9030002>, 검색: 2019. 4. 10)

사망, 잔인한 사육 방법에 의한 프랑스의 푸아그라 생산, 미국 닭 도살장의 잔인한 모습,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공장식 양계장의 닭 사육 문제 등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고 있다. 농업인도 생산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근시안적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체와 공생 공존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가짜 분유 수수 문제도 분유를 먹는 유아나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가짜 분유를 만들어 팔면 당장의 이익은 남을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만든 분유가 유아의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지니고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프랑스 푸아그라 생산 방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푸아그라를 잔인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이익을 남기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위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생명체와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동물과 식물은 모두 인간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과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진 소중한 존재이다. 자연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르고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다른 생명체를 살리고 싶어 하는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두

고 있으면 공생공존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현대 농업에 있어서도 그런 지혜로움이 여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참고문헌

원전류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周易』 『禮記』 『傳習錄』

저서

1. 이기동, 『진리란 무엇인가』, 서울 : 21세기북스, 2015.
2. 이기동, 『대학·중용 강설』,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3.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5.

논문

1. 김명식, 「산업화 농업 시대의 동물 윤리」, 『환경철학』 제18권, 한국환경철학회, 2014.
2. 김완구, 「음식윤리의 주요 쟁점과 그 실천의 문제」, 『환경철학』 제18권, 한국환경철학회, 2014.
3. 변순용, 「로컬푸드에 나타난 음식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윤리 연구』 제94호, 한국윤리학회, 2014.
4. 이상호, 「유교적 생명관의 道德教育的 含意」, 『儒教思想研究』第31輯, 韓國儒敎學會, 2008.

신문

1. 『뉴스메이커』, 581호, 2004년 7월 8일.
2. 『서울신문』, 2014년 9월 18일.
3. 『여성소비자신문』, 2018년 11월 20일.